

“인류 전체가 책임지는 생명공동체를 가꿔야 한다”

생태사상가 구승희 교수를 찾아서

《에코필로소피》를 필두로 생태사상을 전파해온 구승희 교수는 생태주의가 20세기 후반 좌파의 공백을 메우는 돌파구로 등장했다고 분석한다.

그가 지향하는 세계는 인류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생명공동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류의 운명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늬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 저 굴뚝과 나는 간통한 게 분명해!”

최승호의 시 <공장지대>의 일부다. 산업문명의 저주에 따른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이처럼 충격적으로 증언한 작품도 드물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존재의 사슬’에서 특권층으로 군림해온 인간이 산업문명과 ‘간통’한 결과 돌아온 것은 ‘무늬아’로 상징되는 ‘자연의 복수’였다.

생태주의는 좌파의 학문적 돌파구

생태주의는 이처럼 환경오염에 따른 위기의식의 결과로 등장했다. 하지만 생태사상가 구승희 교수(44, 동국대 인문학부)는 논의의 시야를 더 확대한다. 서양의 사회사상사적 지평에서 생태주의의 태동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좌파의 공백을 메우는 돌파구가 생태주의였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68년 혁명을 계기로 서양에서는 좌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동운동으로는 더 이상 변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20세기 후반 좌파의 사상적 돌파구로 등장한 것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생태사상입니다. 특히 생태사상은 기존의 좌파이념과는 달리 여성의 논리에 기반한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구교수에 따르면, 생태문제는 결국 사회문제

다. 생태계 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억압과 왜곡구조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회구조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생태주의와 아나키즘의 접점인 ‘에코-아나키즘’(eco-anarchism)이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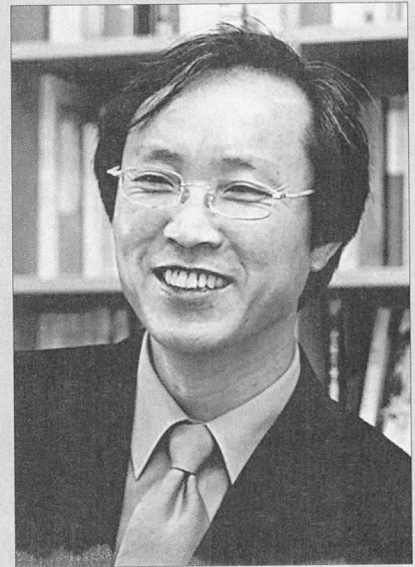
“에코-아나키즘은 극단적 좌파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간의 위계와 서열을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등히 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책임지는 생명공동체 지향

구교수는 모든 종류의 ‘환원주의’에 반대한다. 경제환원주의·계급환원주의 등은 단선적인 원인과 결과만을 상정한다. 예컨대, 과거의 변혁이론가들이 중앙권력의 해체를 통한 혁명을 주장했다면 그는 혁명 자체를 부정한다. 중앙집중적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은 또 하나의 억압과 왜곡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생태위기는 계급과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범세계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생태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외교협상이나 국제조약을 체결할 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교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인류 전



구승희 교수

체가 함께 책임지는 생명공동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류의 운명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윤리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가지 전체가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인간의 자기규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 아니라 협동과 연대의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는 지역단위로 나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외없이 최소한의 도덕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이런 전체가 충족될 때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생태주의적 사회상은 어떤 형태를 띠 것인가. 구교수는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선 ‘우주정치’ ‘지구정치’를 전망한다. 지구적 연대를 위한 국제적 분업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분배와 복지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환경적 분배, 환경적 복지가 바로 그것이다.

구교수는 지난 95년 《에코필로소피—생태·환경의 위기와 철학의 책임》(새길)을 펴내 국내에서 생태주의적 담론에 물꼬를 틔웠다. 생태문화연구회인 ‘연신세미나’도 이끌고 있다. 올해 안에 《생태철학과 환경윤리》를 출간해 생태철학을 완결하고 사회철학으로 학문적 관심을 넓혀갈 계획이다. — 박천홍 기자